

## 社會進化的 必然性を 論함(完)

朴衡秉

### 五, 唯物史觀에 依하야 보면

只今까지 論述하야온것은 人類의 起源으로부터 人類社會의 經濟的 發達乃至變遷의 大體事實을 論及하엿스나 그러나 人類社會가 何故로 發達치 아니하면 아니되는 事와 또 必然的으로 進化치 아니하면 아니되는 事를 論述치 아니하엿다. 그럼으로 只今으로부터서는 上述한바의 內容을 가지고 社會進化的 必然的 法則을 發見하야 보고자 한다. 그런대 社會進化的 必然的 法則을 論述하려함에는 爲先 그에 對한 豫備的 智識으로써 「맑스」의 唯物史觀說과 그의 唯物史觀要約을 簡單히라도 論述치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래서 「맑스」의 唯物史觀說과 또 그의 唯物史觀要約에 依하야 上述한바의 人類의 經濟的 發達及變遷을 檢討한 後 그로부터 社會進化的 必然性を 發見치 아니하면 아니된다. 「맑스」의 唯物史觀說과 그의 唯物史觀要約은 如下하다.

### 가, 唯物史觀說

唯物史觀說은 「맑스」와 「엔겔스」가 創說한바인데 이것은 所謂哲學上으로 보아서 抽象的, 形而上的 哲學을 代身한 具體的, 實踐的 哲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맑스」와 「엔겔스」의 唯物史觀說은 抽象的, 形而上的 哲學이 아니고 具體的, 實踐的 哲學이라 할 수 있다. 唯物史觀의 出發點은 「맑스」當時에 流行하던 辯證法的 思考方法和 唯物論的 見解와를 綜合함에 있다. 卽「헤겔」哲學으로부터 進化的 思考方法을 取하야서 이것을 唯物論에다 結合함에 있다. 이 點에 잇서서 唯物史觀은 흔히 世上에서 實際生活上理想的 動機와 何等の 關係가 없는 哲學上的 唯心論(精神主義)及 唯物論(物質主義)라는 全혀 그의 意味가 相異하다. 唯心論者는 말하되 『物質의 世界는 決코 獨立的으로 存在하지 못한다. 精神만이 오직 獨立的으로 存在할 수 있다. 物質의 世界는 精神의 發展上表現에 不過하다』라고 함에 對하야 唯物論者는 말하되 『吾人에게는 五官으로부터 知覺하는 物質界가 唯一한 眞實의 世界이다. 吾人은 五官으로부터 得하는 智識以外에는 如何한 것도 알지 못한다. 精神은 다

만 物質界의 反映에 不過하다』라고 한다. 이것이 唯心論과 唯物論과의 差異點이다. 그런고로 哲學上의 唯物論者이나 唯心論者는 共히 人類의 實際生活을 捕着하지 못한 點에 至하여서는 모다 一般이다. 그러나 『辯證法的 思考法은 事實을 歷史的으로 考察하여서 社會를 一定不變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不斷的으로 變化하며 成長하는것으로본다. 그래서 事實을 理解치 아니하면 아니된다』함이니 이런 思考方法을 人類社會의 歷史研究에 應用하여 說明한것이 卽 「맑스」의 唯物史觀說이다.

사라서 唯物史觀說의 要点은 如下하다. 人類社會의 進化及 그 制度의 變遷은 唯心論者의 主張함과 如히 人類思想의 變化의 結果로 生하는 것이 아니다. 그 各社會의 物質的 條件이 發達하는 結果로 生하는 것이다. 物質的 條件이 社會의 實際的 根本이 되어서 그래서 各種의 制度—政治, 法律, 宗教文藝 等の 制度—가 이 物質的 條件에 適應하도록 變化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關係사람과 神과 사이의 信仰에 對한 思想 等도 모다 人類生活의 物質的 條件의 變化와 共히 變化한다. 詳言하면 人類도 動物인고로 살기 爲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광」을 求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광」을 求하려는 動機가 彼 等으로 하여금 生活資料를 生産하게 하고 또 生活資料의 生産은 彼 等으로 하여금 結局社會的 關係를 맺게 하여서 그래서 彼 等を 經濟的으로 互相結合하게하나니, 이런 關係가 卽 生産關係이다. 이 生産關係의 總和는 그 時代 그 社會의 經濟生活의 基礎가 되는 同時에 全社會組織의 下層構造가 된다. 이와 相伴하여 이 經濟的 基礎上에 政治, 法律, 宗教 哲學, 藝術 等の 制度가 形成하여서 上層構造가 된다. 그러나 生産關係는 自然으로 生長하여서 그에게 變動이 興起하면 必然的으로 그 時代 그 社會의 下層構造인 經濟的 基礎가 崩壞하게 되나니 同時에 이와 갓치 下層構造의 經濟的 基礎가 崩壞함을 卽하여 이 下層構造의 土臺上에 建設되어야잇는 上層構造의 모든 機構도 動搖하기 始作한다. 그래서 畢竟上層構造의 모든 機構는 或은 徐々히 或은××××××××의 經濟的 土臺와 ××××××××××. 말하자면 『사람의 思想이 生産關係를 變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關係의 變動이 사람의 思想을 變更케한다』할 수 잇는 고로 果然『사람의 意識이 그의 存在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道리혀 그 反對로 彼等의 社會的 存在가 彼等의 意識을 決定하게된다』 卽하여 不斷的으로 變動하는 生産關係는 舊社會組織으로부터 ××××××××××××同時에 이 新×××××× ××하여서 ××××××××, 舊宗教, 舊文藝 等の 思想을 新政治, 新法律, 新宗教, 新文藝 等の 思想으로 變化케한다. 이와 갓튼 關係로써 『社會變遷及發展은 精神, 或은 思想의 進歩에 依함이 아니라 生[産關]係의 變化及發展에 依함이다』換言하면 『社會의 變化의













는 永年徒弟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運命에 陷한 結果, 必然的으로 彼等과 頭領과의 間에 集團的××이 起하게 되었나니 이것이 近世×××××初期的 形體이였다. 「길드」는 經濟的으로보나 政治的으로보나 極히 保守的이였다. 그럼으로 不斷的으로 發達進歩하여야가는 更新의 商工業의 制度와 勢力을 克服하지 못하고 畢竟衰滅의 悲運에 陷하였나니 卽「길드」에 加入하지 못한 商工業家의 更新的 經濟的 勢力으로 因하여 在來의 「길드」組織이 瓦解하고 近世資本主義的 經濟組織의 基礎가 形成된 까닭이였다. 이로부터 産業革命은 封建的 經濟組織을 掃蕩하는 同時에 小規模的 工業制를 大規模的 工場工業制로 變化하게하였다. 그래서 小數의 資本家下에 多數의 賃銀勞働者가 隸屬하게 되었다.

『近世資本主義制度社會』 資本主義制度社會의 階級別은 資本家와 勞働者인데 資本家は××××××地位에 잇고 勞働者는 被 ××××××××位에 잇다. 따라서 資本主義制度社會의 ×××××資本가와 勞働者와의 間에 ×××××이다. 그런데 資本主義的 大規模生産業은 小規模的 手工業을 代身한 機械工業이다. 이와 갓튼 大規模的 工場工業은 初期에는 一工場內에 數千數萬의 壯年男子 勞働者의 勞働力을 要하였스나 不斷的의 機械의 發達は 畢竟筋肉勞働力을 制限하며 또 熟鍊不熟鍊의 區別을 不必要케하였다. 그래서 老幼男女의 區別이업시 賃銀勞働者로서 資本家の××××××××××였다. 그럼으로 機械의 發達は 生産額超過의 結果를 生케할뿐아니라 또 次次로 人力을 不必要케함으로써 이 不必要한만큼의 勞働力은 自然히 除去하게되나니 이 現象이 勞働大衆을 經濟的으로×××××××××. 이 失業의 現象은 一部門으로부터 全部門에 波及하며 地方的으로부터×××××××××××××××× 全世界的으로 擴大되나니 生産業界가 이 程度까지 至하면 資本家的 生産業은 果然『×××××××××× 自己의 손으로 파는』 矛盾에 陷함에 不過하다. 資本家制度에 依하여서 發達한 이 新生産力은 임의 資本家の 能力으로써 ..... 다. 그래서 資本主義經濟組織으로 因하여 階..... 結成하고 또 成熟하고 調練..... 彼等の 階級意識의 覺醒을 따라서 資本家階級에게 對한 ××××××××××작하나니 이×××××은 初에는 經濟的 鬪爭으로부터 始作하여서 次次.....發達하며 一地方的, .....로부터....., 그래서 資本主義社會의 勞資兩階級の.....所謂人類社會前史의 最後.....으로 化할것이니 兩階級中 엇던 階級.....를 得할가 함은 社會進化의 必然的 法則에 依하여 證明될 것이다. 社會가 退步하고 進歩치 아니하면 已어니와 不然한 以上 .....

.....  
.....것이다. ....  
.....  
.....

### 칠, 쏫 말

果然, 人類는 무엇보다 먼저 衣, 食, 住의 生活資料를 얻기 爲하여 始作한 經濟的 行動이 孤立의 生活로부터 群居生活로 進歩케 하여서 그래서 社會를 形成케한 原動力이 되었고 또 이 社會로 하여금 不斷的으로 發達하고 進歩케한 原動力이 되었다. 따라서 原始共產社會가 形成하고 또 滅亡함도 希臘羅馬의 古代社會가 建設되고 또 崩壞함도 中世紀封建社會가 組織되고 또 衰退함도 近世資本主義社會가 出現하고 .....  
..... 經濟行動으로부터서 起한 歷史的 發展過程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原始共產社會로부터 現今의 資本主義社會末期에 至하기까지 아모리한..... 잇다 할지라도 社會는 .....  
.....達하여왔고 또 그와 共히 歷史는 舊로부터 新으로 進行하여왔다. 그래서 아모리한 偉大한 社會的 建設 (制度文物)도 그 自體內에 胚胎하여잇는 自然으로 成長하는 經濟的 發展力으로 因하여.....  
.....希臘羅馬의 古代文明도 中世紀封建社會의 制度도 經濟的 發展으로써 建設되고 또 그의 不斷的 發展으로써.....다.

그러므로 只今까지의 社會進화와 歷史的 回轉이 엇더한 個人的 善, 不善과 賢, 不賢으로서 進化되고 回轉되어온 것이 아니라 經濟的 條件으로 動하는 全人類의 不斷의 努力과 ..... 進化되고 回轉되어온 것이다. 換言하면 人類社會는 唯物史觀法則에 依하여 始作되어야서 그래서 進化하고 發達하여왔나니 『唯物史觀의 第一要約은 人類가 一社會를 構成함에 自己의 意思와 獨立한 物質關係를 맺게 됨이니 各個人이 協議的으로나 或은 意識的으로 그런 物質的 關係를 맺는 것이 아니라 各自의 意思와 獨立한 經濟的 必然의 勢로 因하여 그런 關係를 맺게 됨이다. 果然, 人類的 意識이 人類生活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 反對로 人類的 社會的 生活가 人類的 意識을 決定한다 第二要約은 第一要約에 依하여 建設된 一社會의 物質的 關係가 不斷的으로 發達하여서 從來의 物質的 關係와 互相矛盾하게되나니 이런 時代.....  
.....時代가 .....  
모든..... 『第三要約은 ..... 意識은 精神的 矛盾中으로부터가 아니라 物質的 矛盾中으로부터 說明치 아니하면 아니된다』 『第四要約

은 一社會를 하는 物質的 條件이 舊社會內에서 充分히 成熟치 아니하면 決코.....지 아니한다. 故로 「人類는 恒常解決하기 可能한 問題만을 問題로 삼는다. 第四要約까지는 一社會의 進化段階를 說明함이나 그러나 『第五要約은 近世資本家的 生産關係가 社會的 生活過程의.....』

要컨대 一社會의 進化過程을 三期로 分하여 보면 第一期는 그 社會의 經濟的 發達程度가 아직 未成熟期에 잇는 만큼 將次發展할 餘地가 만히 잇는 時期인 고로 民衆에게 及하는 利益은 비록 적으나 그러나 莫大한 希望을 與함으로써 民衆은 安穩하게 社會的 生産에 從事하여서 그래서 社會的 經濟發展力이 第二期로 進行하도록 한다. 第二期는 그 社會의 經濟的 發達程度가 完熟期인만큼 그 社會制度下에서는 보다 더 發展할 餘地가 업는 時期인 고로 民衆에게 及하는 利益은 比較的 多大하나 그러나 漸次로 生産額超過로써 興起하는 産業上恐慌期에 臨함을 싸라 .....야서 그래서 그 社會의 經濟的 發展力은 人爲的으로 縮小하기 始作하며 其他의 社會.....이 아니면 더욱더 發展하기 不可能한 第三期로 進行한다. 第三期는 그 社會의 經濟的 發達程度가 爛熟期인만큼 그 社會自體의 經濟組織.....어지는 反對로 彼等の..... 民衆은 從來의 經濟組織自體를 ..... 그래서 從來의 經濟的.....나니 이.....은 經濟的으로부터 始作하여서 政治的.....고 만다.

人類社會의 進化過程은 이와 갓튼 進化過程을 過程하고 必然的으로 進化하여서 現今資本主義社..... 社會進化의 必然的 法則은 ..... 맞치 山間으로부터 흘러내리어 오는 내 물이 大海 .....

.....한 것이다.

一九二七年 四月十四日

(끝)